



유 재 석 대표  
토금토금

# 육계 사양관리시 발생하는 머피의 법칙과 해결책

- 사육규모를 두 배 늘렸는데 수익은 두 배가 안된다?
- 자동화 시설을 했는데 성적이 좋아지지 않는다?
- 안개분무장치를 설치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안 쓰거나 철거했다?
- 육추실 바닥에 비닐을 깔고 병아리를 받았어도 아무이상 없었다?
- 10,000수 계사에 열풍기 한대로 닭을 잘 키웠다?
- 옛날에는 그렇게 안했어도 닭을 잘 키웠다?

영장류인 인간의 지능과 비교해서 큰 의미가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닭의 지능은 16~32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육계 사육을 하는 농장에서는 닭의 지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정하고 사양관리를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예를 들면 여섯자짜리 일자급수기 1개가 150~200수 정도를 감당하는데 10,000수 입추한 양계장에 일자급수기 20개를 설비하고 띄엄띄엄 있는 급수기에 닭이 와서 충분한 물을 먹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위의 몇 가지 내용들은 육계 사양관리를 할 때 관리자의 입장이 아닌 닭의 입장에서 관리하라는 것을 강조함이다. 닭의 지능이 매우 낮다는 점을 염두해 두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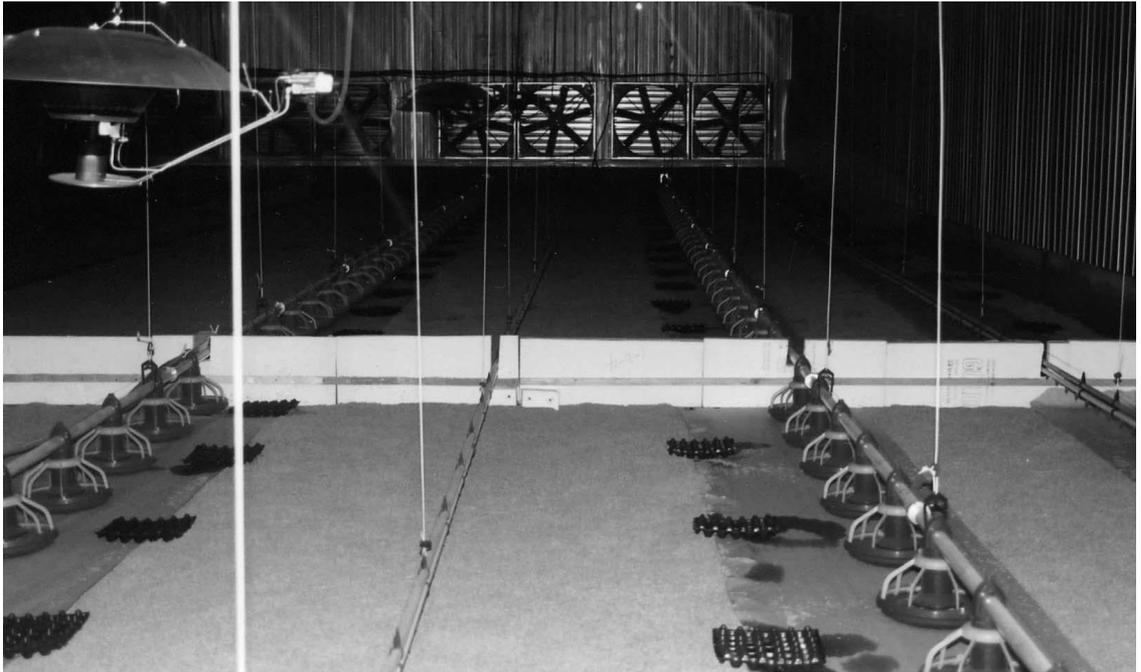
## 1 사육규모를 두 배 늘렸는데 수익은 두 배가 안된다?

최근 통계를 보면 육계사육 가구수는 점차 줄어드는 대신 농가별 사육수수는 증가하고 있다. 즉 규모가 점차 대형화 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규모가 작은 농장일수록 생산비용이 높아지면서 글로벌(세계화)시대에 가격경쟁력이 낮아지면서 사업 자체가 어렵게 된 것이 주된 이유라 할 수 있다.

5년 전만 해도 20,000수 사육을 하면 총 사육비가 1,000여만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원자재(유류대 등) 가격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총 사육비가 700여만원으로 줄었다.

따라서 육계사육만 전업으로 사육하는 농장에서 과거에 3만수 사육을 해도 사업이 됐었지만 현재



나 향후는 6만수를 해야 옛날 수익수준이 되는 현실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 당연히 개인 사육규모의 증가로 이어지고 시설 자동화를 통한 사육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규모를 이렇게 증가시켜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육성적이 예전의 수준으로 유지되느냐 하는 것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농장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사육성적이 텐데 향후 규모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농장 역시 같은 고민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필자가 확인한 결과는 대부분 농장에서 과거 규모가 작았을 때와 현재 사육규모를 늘렸을 때를 비교해보면 현재의 성적이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왜일까?

관리자 스스로 생각해보면 쉽게 답이 나올 것이다.

30,000수 사육하던 과거에는 한 동에 5,000수씩 6동을 가지고 있었다면 현재는 한 동에 10,000수나 20,000수 이상의 계사로 신축했을 것이다. 따라서 계사 사육환경이 과거보다 현재가 나쁘지 않은지 점검해보자.

다음은 과거에는 규모가 작으니 꼬마물통도 사용하고 때로는 사료도 물에 비벼서 주고 육추실 전체도 종이로 깔고 습도도 맞추면서 사육했지만 현재는 규모가 커지면서 과거처럼 할 수 없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과거에는 연탄난로로 해도 충분했지만 지금은 편한 직접열풍기를 많이 이용한다. 불안전연소문제, 산소부족문제, 계사내부 온도 차이문제 등 닭에게 해로운 환경이 증가했다.

네 번째는 규모가 커지면서 병아리가 단일계군이 입식되지 못하고 계군이 혼사되어 사육되다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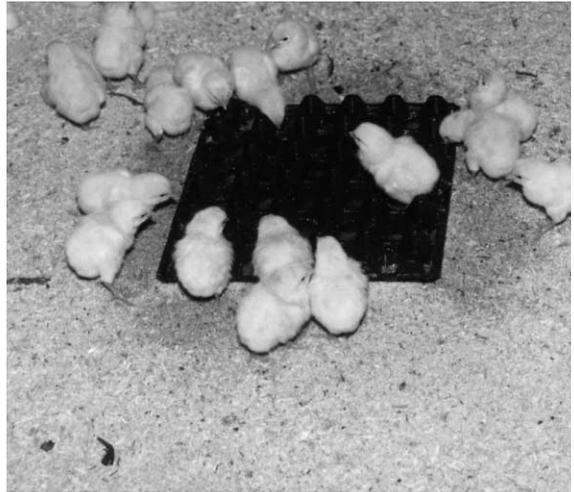
니 사양관리가 어려워졌다. 또 규모가 작을 때는 어느 지점에 가면 다리가 이상한 병아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한 마리 한 마리의 관심도가 있었지만 대군사육을 하면 세세한 부분을 관찰하기가 어렵다. 그런데도 병아리는 과거에 비해서 갈수록 강건성에서는 떨어지고 있다. 즉 병아리가 과거에 비해 약해졌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성적이 낮아지는 이유는 많다. 그럼 규모도 늘리면서 성적이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필자가 농장에서 실제로 해보니까 답을 얻을 수 있었다. 4만수 이상 사육하는 농장도 2만수 사육할 때처럼 똑같이 관리해주면 된다. 즉 기본에 충실하면 가능하다. 3만수 사육할 때처럼 6만수 사육할 때도 같은 사양관리를 해주면 두 배의 수익이 나타난다. 바쁘고 닭 숫자가 많은데 어떻게 옛날처럼 할 수 있는냐고 반문하시겠지만 닭은 규모가 늘어났는지, 주인이 바쁘지 전혀 알지 못한다. 닭이 알아주길 바라는 것은 관리하는 사람의 욕심이자 바램일 뿐 지능 16인 닭은 알지 못한다. 닭은 그냥 주인이 관리하는 만큼 결과로 나타낼 뿐이다. 규모가 두 배면 관리도 두 배로 해줘야 수익이 두 배로 보장된다.

## 2 자동화 시설을 했는데 성적이 좋아지지 않는다?

자동화시설과 사육성적과는 사실 큰 영향이 없다. 오히려 자동은 수동으로 할 때보다 사육성적



은 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육계 시설 자동화란 급이나 급수 혹은 환기시설 등인데 완전 무창계사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개방계사나 단열이 완전하지 않은 양계장에서는 오히려 수동보다 못하다.

그런데도 자동화 시설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했듯이 규모를 증가시키지 않으면 육계사업을 할 수 없게 된 현실 때문이다. 단지 옛날같이 사료를 직접 포대로 부어 주다보면 2~3만수까지는 사육이 가능했지만 6~10만수를 지대사료로 부어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동화가 되어있으니까 닭이 알아서 잘 크겠지 하는 생각을 하지말고 자동화 시설로 사료 부어주는 시간을 절감했으니 그 여유시간에 닭 한 마리 한 마리에 관심을 갖고 옛날처럼 정상 관리를 해주어야 성적이 잘 나올 것이다.

특히 자동화 시설에서도 매일 사료와 물의 높이 조절이 중요하다. 밥을 바닥에 놓고 먹는 것과 상 위에서 먹는 것과는 섭취량과 효율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난다.

### 3 안개분무장치를 설치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안 쓰거나 철거했다?

농장을 방문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설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중 하나가 천정에 안개분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설비를 한 농장의 대부분은 사용을 하지 않거나 고장나서 쓰지 못하고 있다. 어느 설비든 그 설비자체가 잘못된 것보다는 이용할 줄 몰라서 못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즘처럼 계사 한 동에 10,000수 이상을 사육하는 대군밀집 형태의 관리에서는 가장 문제되는 것이 환기와 함께 습도, 계사면지 문제인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유일한 방법은 안개분무장치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개분무장치 때문에 호흡기가 발생해서 안 쓴다는 농장도 있고, 관리가 소홀해서 노즐 구멍이 막혀서 못쓰거나 압이 약해서 물방울이 떨어져서 못쓴다는 농장도 있고, 별 효과가 없어 안 쓰는 농장도 있다. 아니면 옛날에는 그거 없어도 잘만 키웠다고 하는 관리자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확신한다. 계사면지를 바닥으로 가라 앉게 해서 내부를 청정하게 만들어 대장균 감염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또 환기를 통해 계사내부가 건조해지면 출하 때까지 습도 60% 이상 유지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안개분무장치를 활용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제는 안개분무장치를 활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닭을 사육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 4 육추실 바닥에 비닐을 깔고 병아리를 받았어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육추실을 준비할 때 바닥에 물을 뿌려주거나 사료를 주기 위해서 혹은 왕겨가 사료통이나 물통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닥에 종이 깔아준다. 그런데 지금은 규모가 커져 입추수가 증가하다보니 육추실 전체에 종이 깔기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농장에서 비닐을 서너 줄 깔고 있다. 참 쉽고 편한 방법이다.

그런데 비닐을 깔고 물을 뿌릴 경우에 비닐위에 있던 물이 덩어리로 고여 있다가 병아리의 배에 닿으면 육추 3일 후에 항문이 검게 변하면서 반드시 설사를 하게 된다. 배꼽이 덜 아문 초산병아리나 노계병아리는 제대염에 감염될 요인도 많다.

물론 매번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병아리가 약하거나 특히 초산 병아리가 입추되었을 때는 정상적인 사육성적이 나오기 어렵다. 설령

병아리가 약한 계군이 입추되었어도 바닥에 비닐을 깔은 농장은 클레임 처리가 어렵고 그 피해는 농장에서 모두 감수해야만 하는 현실이다. 종이를 깔고 물을 뿌리면 종이와 물을 흡수해서 서서히 증발시키면서 습도도 잘 맞출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된다.

따라서 육추실에 비닐을 깔기보다는 시간이 없으면 종이를 깔되 전체를 다 깔지 말고 줄로 길게 3~4줄을 깔고 그 위에 물을 뿌리고 사료를 개서 주면 된다. 초기에 병아리가 설사하는 농장의 대부분은 바닥에 비닐을 깔고 그 위에 물을 뿌려 육추한 농장들이었다.

## 5 10,000수 계사에 열풍기 한대로 닭을 잘 키웠다?

일반적인 평균 수준으로 본다면 10,000수면 200평 내외의 계사인데 10만kcal의 열풍기 1대로 충분하다는 농장들이 있다. 물론 여름철에야 가능할지 모르지만 봄, 가을 혹은 겨울에는 정상적인 사육을 하기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10,000수 계사에서 충분한 환기를 하면서 정상성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 10만kcal 2대는 있거나 5만kcal 5대 정도는 있어야 한다.

환기를 하지 않고 닭을 사육한다면야 10만kcal 열풍기 한대로 충분하겠지만 정상성적을 내기는 불가능하다. 특히 겨울철은 완벽한 단열이 된 계사를 제외하고는 충분한 열원을 확보해야 환기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열풍기 용량이 적으면 환기를

해주고 싶어도 닭이 몰려서 환기를 해 줄 수 없으니 성적이 잘 나오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 6 옛날에는 그렇게 안했어도 닭을 잘 키웠다?

많이 부딪치는 문제다.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은 많이 변화되고 있고 그 변화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선 규모가 커졌고 병아리가 약해졌다. 질병감염요인도 많아졌고 일령이 빨라졌으며 사료영양이 높아졌다. 소비패턴도 달라졌고 시장의 요구가 많아졌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이고 값싼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 또 우리는 세계시장과 경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잘 살려서 현재의 변화에 조화를 이뤄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산을 해야 한다. 생산이 곧 마케팅이다. 이젠 생산자의 실명이 제품에 붙여서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생산책임제가 도입되는 시기이다.

사양관리의 변화가 필요하면 신기술을 도입해서 내 농장에 가장 적합한 관리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서 적용시킴으로써 육계사업의 성공적인 금자탑을 이루어야겠다. 이젠 변화다. 

■ 문의 : 011-217-5972 '토금토금' 유재석 대표